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에 따른 공격성과 자아존중감

Aggression and Self-Esteem According to Adolescents' Perceived Popularity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 사 도 금 혜
교 수 최 보 가
충남대학교 부설교육연구소
연구원 이 지 민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

Lecturer : Do, Kum-Hae

Prof. : Choi, Bo-Ga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Chungnam Univ.

Researcher : Lee, Ji-Min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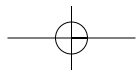
I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of aggression and self-esteem according to adolescents' perceived popularity.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by 377 first and second graders of middle and high school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Adolescents in the popular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n external and relational aggression than those of the general and unpopular groups. (2) The three groups of adolescen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various aspects of self-esteem. (3) Aggression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self-esteem.

주제어(Key Words): 지각된 인기도(perceived popularity), 공격성(aggression), 자아존중감(self-esteem)



1. 서론

청소년기에는 또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또래가 중요한 사회적 관계의 중심으로 대두된다. 청소년들은 또래관계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정서적 지지와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배우게 된다(김선자, 조옥귀, 2002; 성인숙, 1999).

또래는 공통적인 관심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을 해결해감으로써 사회화를 경험하며 청소년기의 전형적인 스트레스와 문제에 대처하는데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또래 관계는 큰 의미가 있다(유안진, 한유진, 김진경, 2002; 최정미, 김미란, 2003).

또래로부터의 수용과 거부하는 성격, 가치관 및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문혁준, 2000; 서남서, 1996; 이숙, 정미자, 1995), 청소년기에 또래로부터의 수용과 거부는 많은 연구들에서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또래 관계에서의 '인기'는 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다(Adler & Adler, 1998; Parker & Gottman, 1989).

지금까지 청소년의 인기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나(김명희, 1990; 류정임, 2000; 서남서, 1996; 윤재원, 1997; Coie, Dodge, & Coppotelli, 1982),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주로 사회측정적 인기도에만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최근 박경리와 김경연(2001)이 사회측정적 인기도의 측정방법이 개인의 주관적 지각정도를 간과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또한 Parkhurst와 Hopmeyer(1998), Rodkin, Farmer, Pearl와 Acker(2000)는 지금까지 보고된 사회측정적 인기아와는 다른 행동 특성을 가진 인기아를 보고하고 있어, 인기도의 개념이 단일 개념이 아님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Parkhurst와 Hopmeyer(1998)는 전통적인 사회측정적 인기도(sociometric popularity)의 정의에 의문을 제기하고, 지각된 인기도(perceived popularity)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지각된 인기도란 집단 내에서 사회적으로 눈에 띄고 우세한 정도를 의미하며 지각된 인기아는 사회적으로 우세하고 눈에 잘 띄지만 구성원들로부터 반드시 선호되지는 않는 것으로 특징지워진다(Lease *et al.*, 2002). 지각된 인기도에 관한 문헌에서, 인기아는 또래 집단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는 아동으로(Adler & Adler, 1998; Eder, 1985; Eder, Evans, & Parker, 1995; Michell & Amos, 1997), 타인을 잘 다루고 통제하는 능력이 있으나, 집단에서 최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고(Adler & Adler, 1998; Merten, 1997) 보고하고 있다.

지각된 인기도는 사회측정적 인기도와 평가하는 하위 요인에서 차이가 있는데, 사회측정적 인기도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의 지명과 가장 싫어하는 친구의 지명을 측정하여 가장 좋아하는 지명 점수에서 가장 싫어하는 지명 점수를 뺀 것으로 산출되는데 비해, 지각된 인기도는 또래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지각되는 친구의 지명과 가장 인기 없는 것으로 지각되는 친구의 지명을 측정하여 가장 인기 있는 지명 점수에서 가장 인기 없는 지명 점수를 뺀 것으로 산출된다(Lease, Kennedy, & Axelrod, 2002; Musgrove, Lease, & Axelrod, 2002).

사회측정적 인기도와 지각된 인기도의 상관을 조사한 Lease 등(2002)과 Musgrove 등(2002)의 연구에서, 사회측정적 인기도가 지각된 인기도를 50%밖에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으며, Tracy(2000)의 연구에서도 사회측정적 인기도와 지각된 인기도의 상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제안하고 있다. Gest, Graham-Bermann 및 Hartup(2001)과 Lease 등(2002)도 사회측정적 인기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지각된 인기도의 개념을 소개하고, 지각된 인기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지각된 인기도의 개념을 도입하여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인기아의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인기아는 공격성이 낮고(김정연, 2003), 다른 또래들에 비해 긍정적인 행동 특성을 나타내고 친사회적이며(김윤경, 1997; 류정임, 2000), 사교성과 인지적 수준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Newcomb, Bukowski, & Pettee, 1993). 또한 Hartup(1983)도 인기아는 거부아에 비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며 사회적으로도 유능하고, 학습의 질서와 규칙을 잘 지킨다고 보고하였으나(윤재원, 1997), 이러한 결과는 사회측정적 인기도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 인기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공격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에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Cairns, Neckerman, Cairns, Gest와 Garipey(1988)는 초등학교 4학년과 7학년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을 조사한 결과, 공격적인 청소년이 사회적 집단에서 핵심 멤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Olweus(1984)도 상습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동도 중간 정도의 인기를 얻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또래를 괴롭히는 공격적인 여학생들이 또래들간에 놀라울 정도로 인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Lindman & Sinclair, 1988), 또래관계에서 높은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Hanish, 200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보고된 사회측정적 인기아의 특성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각된 인기아의 행동 특성에 관심을 가지면서 발견된 사실로서, 사회측정적 인기아와 지각된 인기아의 가장 명백한 차이는 공격성에서 나타난다. 대부분의 사

회측정적 인기도 연구는 인기도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으나(김정연, 2003; Tracy, 2000), 지각된 인기도의 연구에서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의 관계를 연구한 Lease 등(2002)과 Musgrove 등(2002)은 지각된 인기아가 공격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Tracy(2000)의 연구에서도,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각된 인기아는 높은 공격성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어, 지각된 인기아의 공격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또래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와 수용이 자기 역량 지각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인이 되고(한중혜, 1996), 친구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제기됨(최정미, 김미란, 2003)에 따라, 인기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하영희와 Edwards(2004)는 인기도와 자아존중감간에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밝히고 있고, 양원경과 도현심(1999)도 인기도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또래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아동이 자신의 능력을 높게 평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이진화, 전경숙, 1995). 또한 친구지지가 자기존중감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선자, 조옥귀, 2002; 하영희, Edwards, 2004), Berndt(1996)는 친구관계를 만족스럽게 평가하는 것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킨다고 제기하고 있어, 또래의 지지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또래들로부터 거부된 아동이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Patterson, Kupersmidt, & Griesler, 1990),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자아존중감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어(Bishop & Inderbitzen, 1995), 인기도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가 더 수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아존중감 발달에 있어 중요한 환경 변인으로 또래 공격성이 대두됨(도현심, 최미경, 1998)에 따라,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도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 정희옥(2003)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타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적대감을 품고 상처를 입히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도현심과 최미경(1998)의 연구와 이숙과 이춘아(1998)의 연구에서도 또래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은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격성의 하위 요인들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살펴본 하영희와 Edwards(2004)의 연구에서도 외현화 공격성, 관계상 공격성 모두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을 보여, 공격성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다고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Baumeister(1993)는 높은 자존감을 가진 공격적인 집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더 공격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Baumeister, Smart, & Boden, 1996), 서수균과 권석만(2002)은 실제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격성과 자아존중감 간에는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을 단일영역으로 간주하여 전반적 자아존중감 분석에만 치중하였던 선행 연구들이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으며(최정미, 김미란, 2003), 자아존중감을 다영역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김희화, 김경연, 1999), 자아존중감을 하위영역별로 나누어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행해진 대부분의 국내 연구는 사회측정적 인기도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본 연구는 지각된 인기도를 도입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며, 성차와 연령차가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한 선행 연구들(Lease *et al.*, 2002; Musgrove *et al.*, 2002; Tracy, 2000)에 근거하여, 지각된 인기도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공격성에 차이를 살펴보고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공격성은 차이가 있는가?
2.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는가?
3. 청소년의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D와 K지역에 재학하는 중·고등학교 1, 2학년 377명을 대상으로 지각된 인기도 검사, 공격성 척도와 자아존중감 척도를 실시하였다. 2003년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총 5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443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에서 응답이 누락된 자료와 부실 기재한 자료를 제외한 총 37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의 평균 연령은 남자 중학생이 14.7세, 여자 중학생이 14.4세였으며, 남자 고등학생은 18.1세, 그리고 여자 고등학생은 18.2세였다. 이외의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지각된 인기도 검사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를 측정하기 위해 Lease,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배경변인	구분	빈도(%)	배경변인	구분	빈도(%)
연령	중학생	196(52.0)	성별	남	217(57.6)
	고등학생	181(48.0)		여	160(42.4)
아버지 연령	40세 이하	19(5.0)	어머니 연령	40세 이하	72(19.1)
	41 - 45세	133(35.3)		41 - 45세	179(47.5)
	46 - 50세	132(35.0)		46 - 50세	69(18.8)
	51세 이상	44(11.7)		51세 이상	9(1.9)
아버지의 학력	중졸 이하	57(15.1)	어머니의 학력	중졸 이하	82(21.7)
	고졸	203(53.8)		고졸	219(58.1)
	전문대졸 이상	79(21.0)		전문대졸 이상	38(10.1)
아버지의 직업	무직	13(3.4)	어머니의 직업	무직	206(54.6)
	단순노무직	25(6.6)		단순노무직	8(2.1)
	서비스직	35(9.3)		서비스직	65(17.2)
	판매직	48(12.7)		판매직	43(11.4)
	사무직	134(35.5)		사무직	15(4.0)
	관리직	24(6.4)		관리직	7(1.9)
	전문직	11(2.9)		전문직	2(0.5)
	기타	67(17.8)		기타	17(4.5)

Kennedy 및 Axelrod(2002)의 지각된 인기도 검사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지각된 인기도는 가장 인기 있는 지명과 가장 인기 없는 지명의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지는데, 가장 인기 있는 지명은 '반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친구'로 측정하였고, 가장 인기 없는 지명은 '반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없는 친구'로 측정하였다. 각 질문에 대해 3명씩 지명하게 하여 개인이 받은 지명 빈도를 점수로 사용하였으며, 지각된 인기도 점수는 가장 인기 있는 지명 점수에서 가장 인기 없는 지명 점수를 뺀 것으로 계산하였다. 반별로 총점을 계산하였으며, 점수의 총합으로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였다. M+1SD이상을 인기있는 청소년, M-1SD이하를 인기없는 청소년, 그 외의 사람을 보통 청소년의 분류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공격성 척도

청소년의 공격성은 Crick과 Grotpeter(1996)가 사용한 공격성 척도(15문항)를 번안·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응답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1점에서 4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를 요인 분석한 결과, '외현화 공격성', '관계상 공격성',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3개의 하위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공격성 점수는 각 요인별로 응답한 점수를 총합하여 요인별 문항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각 요인별 문항수와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표 2〉와 같다.

2) 자아존중감 척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전귀연(1993)이 개

〈표 2〉 공격성 척도의 문항수, 신뢰도 계수

하위요인	문항수	Cronbach α
외현화 공격성	6	.85
관계상 공격성	5	.86
친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음	4	.82

〈표 3〉 자아존중감 척도의 문항수, 신뢰도 계수

하위요인	문항수	Cronbach α
총체적 자아존중감	4	.70
사회적 자아존중감	9	.86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9	.87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5	.66

발한 자아존중감 척도(The Self-Esteem Inventory)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7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1점에서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를 요인 분석한 결과,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그리고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으로 4개의 하위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자아존중감 점수는 각 요인별로 응답한 점수를 총합하여 요인별 문항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각 요인별 문항수와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표 3〉과 같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와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 및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삼원변량분석(three-way ANOVA)과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으며,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공격성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공격성의 평균과 사후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청소년의 인기도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각된 인기도의 주효과는 외현화 공격성($F=24.50, p<.01$)과 관계상 공격성($F=21.61,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외현화 공격성과 관계상 공격성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4>에 나타나 있듯이, 외현화 공격성은 인기있는 청소년($M=2.31$)이 보통 청소년($M=1.71$)과 인기없는 청소년($M=1.7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관계상 공격성도 인기있는 청소년($M=1.67$)이 보통 청소년($M=1.21$)과 인기없는 청소년($M=1.3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의 주효과는 외현화 공격성($F=6.98, p<.0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

계상 공격성과 친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외현화 공격성의 경우 남학생($M=1.92$)이 여학생($M=1.60$)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의 주효과, 지각된 인기도와 성의 상호작용 효과, 지각된 인기도와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 및 지각된 인기도와 성 및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는 외현화 공격성, 관계상 공격성 및 친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음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평균과 사후검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각된 인기도의 주효과는 사회적 자아존중감($F=13.33, p<.0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총체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사회적 자아존중감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6>에서처럼, 인기있는 청소년($M=3.50$)의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통 청소년($M=3.19$)과 인기없는 청소년($M=2.8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의 주효과는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F=8.99, p<.0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및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가정에

<표 4> 지각된 인기도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공격성의 평균과 사후검증 결과

공격성	지각된 인기도	중학생		고등학생		총계	Scheffé
		남	여	남	여		
외현화 공격성	인기있는 청소년	2.49	2.19	2.18	2.27	2.31	a
	보통 청소년	1.84	1.49	1.89	1.54	1.71	b
	인기없는 청소년	1.74	1.43	1.93	1.93	1.76	b
	총계	1.93	1.54	1.92	1.66	1.79	
관계상 공격성	인기있는 청소년	1.78	1.78	1.37	1.80	1.67	a
	보통 청소년	1.25	1.19	1.20	1.18	1.21	b
	인기없는 청소년	1.29	1.40	1.20	1.60	1.35	b
	총계	1.33	1.27	1.22	1.29	1.28	
친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음	인기있는 청소년	3.14	2.78	3.00	2.88	2.99	
	보통 청소년	2.88	2.88	2.75	2.84	2.83	
	인기없는 청소년	3.13	3.03	2.73	2.78	2.93	
	총계	2.95	2.89	2.77	2.84	2.86	

a, b는 Scheffé의 사후검증 결과로, 같은 문자로 표기된 것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표 5〉 지각된 인기도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공격성의 삼원변량분석 결과

변 인	변 량 원	SS	df	MS	F
외현화 공격성	지각된 인기도(A)	12.46	2	6.23	24.50**
	성(B)	1.77	1	1.77	6.98**
	연령(C)	0.38	1	0.38	1.49
	상호작용(A×B)	0.80	2	0.40	1.57
	상호작용(A×C)	1.16	2	0.58	2.27
	상호작용(B×C)	0.62	1	0.62	2.45
	상호작용(A×B×C)	0.47	2	0.24	0.92
	오 차	92.82	365	0.25	
	총 계	1321.42	377		
관계상 공격성	지각된 인기도(A)	8.42	2	4.21	21.61**
	성(B)	0.88	1	0.88	4.53
	연령(C)	0.13	1	0.13	0.66
	상호작용(A×B)	1.22	2	0.61	3.13
	상호작용(A×C)	0.34	2	0.17	0.86
	상호작용(B×C)	0.71	1	0.71	3.66
	상호작용(A×B×C)	0.42	2	0.21	1.08
	오 차	71.11	365	0.20	
	총 계	696.76	377		
친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음	지각된 인기도(A)	0.60	2	0.30	0.78
	성(B)	0.23	1	0.23	0.59
	연령(C)	0.89	1	0.89	2.30
	상호작용(A×B)	0.78	2	0.39	1.01
	상호작용(A×C)	0.60	2	0.30	0.78
	상호작용(B×C)	0.28	1	0.28	0.73
	상호작용(A×B×C)	5.10E-02	2	2.55E-02	0.07
	오 차	141.41	365	0.39	
	총 계	3236.63	377		

**p < .01

〈표 6〉 지각된 인기도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평균과 사후검증 결과

공 격 성	지각된 인기도	중 학 생		고 등 학생		총 계	Scheffé
		남	여	남	여		
총체적 자아존중감	인기있는 청소년	3.56	3.47	3.35	3.03	3.39	
	보통 청소년	3.29	3.28	3.29	3.36	3.30	
	인기없는 청소년	3.27	2.85	3.63	3.16	3.25	
	총 계	3.33	3.25	3.33	3.30	3.31	
사회적 자아존중감	인기있는 청소년	3.50	3.69	3.52	3.26	3.50	a
	보통 청소년	3.07	3.29	3.29	3.09	3.19	b
	인기없는 청소년	2.83	2.52	3.13	2.69	2.82	c
	총 계	3.10	3.24	3.29	3.07	3.18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인기있는 청소년	3.34	2.86	3.37	2.79	3.16	
	보통 청소년	3.42	3.31	3.35	3.10	3.31	
	인기없는 청소년	3.71	3.62	3.74	3.10	3.58	
	총 계	3.44	3.30	3.40	3.06	3.32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인기있는 청소년	2.56	2.73	2.85	2.68	2.69	
	보통 청소년	2.89	3.01	2.77	2.91	2.89	
	인기없는 청소년	2.77	2.26	2.50	2.98	2.61	
	총 계	2.83	2.90	2.75	2.89	2.83	

a, b, c는 Scheffé의 사후검증 결과로, 같은 문자로 표기된 것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표 7〉 지각된 인기도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삼원변량분석 결과

변 인	변 량 원	SS	df	MS	F
총체적 자아존중감	지각된 인기도(A)	0.36	2	0.18	0.35
	성(B)	1.85	1	1.85	3.60
	연령(C)	9.65E-03	1	9.65E-03	0.02
	상호작용(A×B)	2.33	2	1.16	2.27
	상호작용(A×C)	2.20	2	1.10	2.15
	상호작용(B×C)	4.92E-02	1	4.92E-02	0.96
	상호작용(A×B×C)	0.22	2	0.11	0.22
	오 차	187.11	365	0.51	
	총 계	4314.13	377		
사회적 자아존중감	지각된 인기도(A)	10.19	2	5.10	13.33**
	성(B)	0.72	1	0.72	1.88
	연령(C)	6.64E-03	1	6.64E-03	0.02
	상호작용(A×B)	1.34	2	0.67	1.75
	상호작용(A×C)	1.00	2	0.50	1.31
	상호작용(B×C)	1.17	1	1.17	3.05
	상호작용(A×B×C)	0.19	2	9.66E-02	0.25
	오 차	139.48	365	0.38	
	총 계	3975.99	377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지각된 인기도(A)	4.22	2	2.11	3.42
	성(B)	5.55	1	5.55	8.99**
	연령(C)	0.78	1	0.78	1.27
	상호작용(A×B)	1.23	2	0.62	1.00
	상호작용(A×C)	0.26	2	0.13	0.21
	상호작용(B×C)	0.76	1	0.76	1.23
	상호작용(A×B×C)	0.41	2	0.21	0.33
	오 차	225.30	365	0.61	
	총 계	4402.90	377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지각된 인기도(A)	3.54	2	1.77	4.37
	성(B)	6.13E-02	1	6.13E-02	0.15
	연령(C)	0.25	1	0.25	0.62
	상호작용(A×B)	0.35	2	0.18	0.43
	상호작용(A×C)	1.33	2	0.67	1.64
	상호작용(B×C)	0.53	1	0.53	1.32
	상호작용(A×B×C)	2.62	2	1.31	3.23
	오 차	148.02	365	0.41	
	총 계	3185.36	377		

**p < .01

서의 자아존중감의 경우, 남학생(M=3.42)이 여학생(M=3.19)보다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의 주효과, 지각된 인기도와 성의 상호작용 효과, 지각된 인기도와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 및 지각된 인기도와 성 및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는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그리고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청소년의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청소년의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n=377)

	공 격 성		
	외현화 공격성	관계상 공격성	친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음
자아존중감			
총체적 자아존중감	.05	.00	-.34*
사회적 자아존중감	.07	.00	-.39*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05	-.01	-.07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19*	-.13*	.00

*p < .05

〈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외현화 공격성은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그리고 가정에서의 자아존중

감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으나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r=-.19, p<.05$)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와 유사하게, 관계상 공격성도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및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지만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r=-.13, p<.05$)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음은 총체적 자아존중감($r=-.34, p<.05$), 사회적 자아존중감($r=-.39, p<.05$)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알아보고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고 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지각된 인기도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지각된 인기도에 따라 외현화 공격성과 관계상 공격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있는 청소년들이 보통 청소년과 인기없는 청소년들보다 외현화 공격성과 관계상 공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은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Lease *et al.*, 2002; Musgrove *et al.*, 2002; Tracy, 2000)과 같은 맥락이며, 또래 사이에서 인기 있는 중학생 남자들이 자신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소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낸다는 Adler와 Adler(1998)의 연구도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반사회적인 행동 특성을 가진 인기아 집단이 있다고 밝힌 Rodkin 등(2000)의 연구와 남아의 간접적인 공격성이 인기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Salmivalli, Kaukiainen 및 Lagerspetz(2000)의 연구 결과도 본 연구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인기가 또래들 사이에서 우세하고 눈에 띄는 청소년으로 가정된다는 점(Lease *et al.*, 2002)과 그들이 또래 집단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으며 그 지위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점(Eder *et al.*, 1995; Michell & Amos, 1997)에 근거해서 볼 때, 본 연구 결과는 지각된 인기가 또래들 사이에서 우세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소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성별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 외현화 공격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외현화 공격성이 더 높았다. 이

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외현화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 결과(이경희, 1998; 이은주, 2001)와 같은 맥락이며, 청소년의 주도적-외현화 공격성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다는 박민정(2002)의 연구 결과도 본 연구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의 신체적 공격 행동은 허용하는데 비해 여학생이 공격적인 행동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억압하여 분노의 정서를 여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유안진, 한유진, 김진경, 2002)과 남자들이 여아들에 비해 위협적이고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Miller, Danaher, & Forbes, 1986)에 근거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공격적인 행동을 외적으로 더 많이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지각된 인기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지각된 인기도에 따라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있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통 청소년, 인기없는 청소년 순으로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기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연구 결과(박경리, 김경연, 2001)와 같은 맥락이며, 또래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아동이 자신의 능력을 높게 평가한다는 이진화와 전경숙(1995)의 연구와 친구관계를 만족스럽게 평가하는 것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킨다는 Berndt(1996)의 견해도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의 지지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점(하영희, Edwards, 2004)과 또래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인기있는 지명을 받을수록 청소년들은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유능하다고 지각한다는 점(양원경, 도현심, 1999)에 근거하여, 친구라는 사회적 지지가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넷째,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다. 이는 남학생의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여학생의 가정적 자아존중감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김희화, 김경연, 1998; 김희화, 김경연, 1999)와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부장적 전통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맥락에서 남자가 여자들보다 더 높은 위신과 지위를 가졌다고 지각한다는 점(김현주, 2002)과 남아선호사상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관에 따라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점(김선자, 조귀옥, 2002)에 근거하여, 가족구성원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하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섯째,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외현

화 공격성과 관계상 공격성은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친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음은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또래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은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도현심과 최미경(1998)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며, 외현화 공격성, 관계상 공격성 모두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하영희와 Edwards(2004)의 연구 결과도 본 연구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이 반사회적 행동 수준이 낮다는 점(심희옥, 1998)과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타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점(정희옥, 2003)에 근거하여,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지각된 인기가 다소 공격적인 것으로 밝혀져, 지금까지 보고된 인기아와는 상반된 행동 특성을 가진 인기아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인기아의 행동 특성을 규정하는데 있어서도 다양한 시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사회측정적 인기도에만 초점을 두었던 국내 연구에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을 하위영역별로 나누어, 지각된 인기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살펴보고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밝혀봄으로써, 자아존중감 연구의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상과 같은 결론과 논의를 통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제한점을 가지며, 교사평가, 관찰평가와 같은 다양한 보고자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상관만을 살펴 보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광범위한 연구 대상으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명희(1990). 학급내의 인기아와 고립아의 행동 특성 차이 분석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자, 조옥귀(2002).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자기 존중감 및 행동문제와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천*, 13(1), 361-385.
- 김윤경(1997). 인기, 무시, 배척 집단의 사회 기술 및 부모 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연(2003). 아동의 기질,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또래 지위가 공격성 및 비행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이상화간의 관계: 교우관계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매개 변수로. *청소년학연구*, 9(1), 115-139.
- 김희화, 김경연(1998).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2), 47-60.
- 김희화, 김경연(199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성별차이와 발달적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37(5), 1-17.
- 도현심, 최미경(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 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19-33.
- 류정입(2000). 감정조망수용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과 유아의 인기도와와의 관계. *아동교육*, 9(2), 173-185.
- 문혁준(2000). 또래수용도와 부모 양육태도: 인기아와 고립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7), 39-51.
- 박경리, 김경연(2001). 아동의 영역별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 및 또래수용도의 영향: 단짝친구 지지의 중재효과. *아동학회지*, 22(4), 85-97.
- 박민정(2002).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남서(1996). 초·중등학생의 인기도와 자아개념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수균, 권석만(2002). 자존감 및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21(4), 809-826.
- 성인숙(1999). 피해여자 청소년 부모자녀 관계와 친구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희옥(1998).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부적응 생활사건,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원과 부적응에 관한 중단연구. *아동학회지*, 19(2), 35-48.
- 양원경, 도현심(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괴롭힘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 223-238.
- 유안진, 한유진, 김진경(2002).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과 또래관계의 질. *아동학회지*, 23(3), 79-90.
- 윤재원(1997). 인기아와 비인기아의 형성요인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1998). 관계지향 공격성 및 외현화 공격성과 심리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숙, 이춘아(1998). 청소년의 공격성과 공격희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67-77.
- 이숙, 정미자(1995). 아동의 또래 수용도 및 관련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33(2), 103-112.
- 이은주(2001). 공격적 행동 유형 및 성별에 따른 집단 괴롭힘 가해 아동과 피해 아동의 또래관계 비교. *아동학회지*, 22(2), 167-180.
- 이진화, 전경숙(1995). 연령, 성별, 사회측정적 지위에 따른

-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부모의 책임지각. *대한가정학회지*, 33(6), 225-244.
- 전귀연(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희옥(2003). 초·중·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와의 관계: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0(4), 443-458.
- 최정미, 김미란(2003). 청소년의 친구관계 특성과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373-394.
- 하영희, Edwards(2004).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친사회적 행동, 감정이입, 자기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5(2), 121-132.
- 한중혜(1996).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역량 지각 및 자아존중감.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dler, P. A., & Adler, P. (1998). *Peer power: Preadolescent culture and identity*.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Baumeister, R. F. (1993). Understanding the inner nature of low self-esteem. Uncertain, fragile, protective, and conflicted. In R. Baumeister (Ed.),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gard* (pp. 201-218). New York: Plenum Press.
- Baumeister, R. F., Smart, L., & Boden, J. M. (1996).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103, 5-33
- Berndt, T. J. (1996). Exploring the effects of friendship quality on social development.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346-36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ishop, J. A., & Inderbitzen, H. M. (1995). Peer acceptance and friendship: An investigation of their relation to self-esteem.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5(4), 476-489.
- Cairns, R. B., Neckerman, Cairns, B. D., Gest, S. D., & Garipey, J. (1988). Social networks and aggressive behavior: Peer support or peer reje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6), 815-823.
- Coie, J. D., Dodge, K. A., & Coppotelli, H. (1982). Dimension and types of social status: Across age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4), 557-570.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6). Relational Aggression, Overt Aggression and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67, 2328-2338.
- Eder, D. (1985). The cycle of popularity: Interpersonal relations among female adolescents. *Sociology of Education*, 58, 154-165.
- Eder, D., Evans, C. C., & Parker, S. (1995). *Schooltalk: Gender and adolescent culture*.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Gest, S. D., Graham-Bermann, S. A., & Hartup, W. W. (2001). Peer Experience: Common and Unique Features of Number of Friendship, Social Network Centrality, and Sociometric Status. *Social Development*, 10(1), 23-40.
- Hanish, L. D. (2000). Children who get victimized at school: what is known? what can be done.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4(2), 113-119.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 In P.H.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New York: Wiley.
- Lease, A. M., Kennedy, C. A., & Axelrod, J. L. (2002). Children's Social Constructions of Popularity. *Social Development*, 11(1), 87-109.
- Lindman, R., & Sinclair, S. (1988). *Social roles and aspirations of bullies and victims*. Paper presented at the 8th world biennial ISRA conference, Swansea, Wales, July 2-6.
- Merten, D. E. (1997). The meaning of meanness: Popularity, competition, and conflict among junior high school girls. *Sociology of Education*, 70, 175-191.
- Michell, L., & Amos, A. (1997). Girls, pecking order and smoking. *Social Science and Medicine*, 44, 1861-1869.
- Miller, P. M., Danaher, D. L., & Forbes, D. (1986). Sex-related strategies for coping with interpersonal conflict in children aged five and seven. *Developmental Psychology*, 22, 543-548.
- Musgrove, K. T., Lease, A. M., & Axelrod J. L. (2002). Dimensions of Social Status Preadolescent Peer Groups: Likability, Perceived Popularity, and

- Social Dominance. *Social Development*, 11(4), 508-533.
- Newcomb A. F., Bukowski, W. M., & Pettee, L. (1993). Children's peer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of popular, rejected, neglected, controversial, and average sociometric status. *Psychological Bulletin*, 113, 99-128.
- Olweus, D. (1984). Aggressors and their victims: bullying at school. In N. Frude & H. Gault (Eds.), *Disruptive behavior in schools*. John Wiley & Sons Ltd, 57-76.
- Parker, J. G., & Gottman J. M. (1989).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in a relational context. In T. J. Berndt & G. W. Ladd(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pp.95-131). New York: Wiley.
- Parkhurst, J. T., & Hopmeyer, A. (1998). Sociometric popularity and peer-perceived popularity: Two distinct dimensions of peer statu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8, 125-144.
- Patterson, C. J., Kupersmidt, J. B., & Griesler, P. C. (1990). Children's perceptions of self and of relationships with others as a function of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1, 1335-1349.
- Rodkin, P. C., Farmer, T. W., Pearl, R., & Acker, R. V. (2000). Heterogeneity of Popular Boys: Antisocial and Prosocial Configu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6(1), 14-24.
- Salmivalli, C., Kaukiainen, A., & Lagerspetz, K. (2000). Aggression and sociometric status among peers: Do gender and type of aggression matter?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1, 17-24.
- Tracy, V. (2000). Competing for hegemony during adolescence a link between aggression and social status.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2005년 8월 4일 접수, 2005년 11월 1일 채택)